

「한국종교박물관을 위한 제언」을 읽고

양 은 용(원광대 교수)

I

윤이흠 교수님의 기조강연문 「한국종교박물관을 위한 제언」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지닌 사회문화적 위상과 역할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 박물관·미술관의 활성화정책과 관련하여 종교학계의 원로인 윤교수님께 기조강연을 부탁드린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이 정책사업은 한국 종교문화의 바람직한 전승을 위해 절실한 일로, 박물관·미술관을 중심한 문화학계나 종교계일반과 연관한 종교학계에 있어서 커다란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문이기는 하지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논평을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사업을 위해 공감되는 바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논평이 蛇足임은 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한사코 논평을 붙인 이유는 이 종교박물관·미술관의 건립 등에 대한 사계의 관심이 아닐까 한다. 또한 그것은 기조강연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바에 대한 보충적 발언을 유도하라는 요청일 것이므로, 몇가지 질문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II

윤교수님은 논지를 I. 시대적 요청과 종교박물관, II. 한국적 다종교상황과 한국문화의 특징, III. 종교상황의 역사적 흐름, IV. 한국종교박물관의 갈길이라는 순서에 담았다.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종교박물관의 탄생을 요청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종교사회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더듬어 다종교 개방사회를 이상적으로 보고, 「다종교 개방사회는 곧 모든 종교가 서로 타종교를 인정하면서 동등한 상화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 이념은 곧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 개방질서는 곧 현대 지구촌이 요청하는 이념이다」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다종교상황을 개방단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종합적 종교박물관을 창건하는데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내일의 지구촌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개방적 다원주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전시하는 종교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한국사회의 종교현상을 적확하게 간추리고 있으며,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어느 민족사회나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사상의 주류는 종교가 담당해 왔고, 따라서 한국인의 얼을 담은 문화사상은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종교적 성격을 띤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된 역사문화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종교사회, 다원가치사회인 오늘의 종교상황 역시 이러한 문화 내지 문화재를 거둬 창조하는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윤교

수님의 지적과 같이 사회상황은 변화되었고, 변화된 틀에 맞추지 못하면 그 역사적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도 주지하는 바이다.

III

다만 종교박물관·미술관이라는 새로운 틀의 문화전승채널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당위성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일련의 분석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관련된 사항을 보충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질문으로 묶어, 우선 두가지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 박물관·미술관의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 박물관·미술관의 종교관련 문화재와 종교전문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 비추어 어떤 형태의 문화(문화재)를 담을 것인가? 전자들과의 차이점은 다만 종교계 일반을 아우른다는 의미인가?

둘째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운영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종교 개방사회를 향한 운영틀로 보면, 전문박물관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오늘날의 종교현상을 담으려는 의도가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을까? 종교현상 역시 역사적 전개 과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다종교상황을 강조하면 박물관·미술관 보다는 교육원의 성격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한 전문연구자들을 위해, 종교학계에서 전해줄 指南에 이러한 몇가지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들과 관련해서 윤교수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한다.